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6205

2008년 2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윌리암 블레이크의 『순수와 경험의노래』에 나타난 인간의 구원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새 롬

윌리암 블레이크의 『순수와 경험의노래』에 나타난 인간의 구원

Human Salvation in the Songs of Innocence and of Experience of William Blake

2008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새 롬

윌리암 블레이크의 『순수와 경험의 노래』에 나타난 인간의 구원

지도교수 정 옥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새 롬

이새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7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초록 ····· iii

Ⅰ. 서론 ····· 1

Ⅱ. 순수와 경험의 대립양상 ····· 5

Ⅲ. 열린 윤리와 닫힌 윤리의 세계 ····· 14

Ⅳ. 순수와 경험의 신성과 인간구원의 비전 ····· 31

Ⅴ. 결론 ····· 40

참고문헌 ····· 42

ABSTRACT

Human Salvation in the *Songs of Innocence and of Experiences* of William Blake

Sae-rom Lee

Faculty Advisor : Prof. Ok-hee Chung, Ph. D.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deal and the vision of the two contrary states of Innocence and Experience in *Songs of Innocence and of Experience* of William Blake. Blake expresses his ideal and his own vision of salvation in his early and late works of poetry.

This thesis agrees with Blake's poetry in terms of his artistic talent and the social disorder of late 18th century in the first chapter.

In chapter Ⅱ, this thesis focuses on Blake's outlook on the world, which shows the two contrary states of the human soul; innocence and experience. Innocence is free and uninhibited state. In the state of Innocence it is true that God is a benevolent Being. On the other hand, Experience is oppressive and fallen state. In *Songs of Experience*, God is dipicted as a cruel and deceptive Being. Blake thought that the contraries are indispensable. He doesn't insist that the state of innocence is completely right and the state of experience is completely wrong. Therefore the contraries dynamically communicate each other to go to a higher state.

Based on this aspect in chapter Ⅲ, this thesis deals with three types of existences where all kinds of contradictory forces coexist. For example, Love and Hate, Reason and Energy, Good and Evil, these are contradictory

but indispensable to human existence. In Blake's poetry, these contradictory forces coexist in different ways. They are called the state of static morality, the state of chastity, and the state of dynamic morality. In these three states, 'Dynamic morality' is what Blake ultimately pursues. The 'Dynamic morality' is based on Blake's religious belief and vision. Blake's works reflect his religious belief that human beings may rise to the state of God by displaying their native divinity.

Blake originally thought that human beings have their own divinity. In chapter Ⅳ, I agree to Blake's ultimate vision of salvation based on his belief in human beings' divinity and the state of dynamic morality.

Human beings who had their own divinity have lost their divinity due to the separation of God. The loss of divinity appears as a religious oppression on the social side, and as distorted love on the individual side. Blake insists that human beings recover their own divinity and that human beings seek a state of higher Innocence or a state of dynamic morality passing those of Innocence and Experience. Ultimately William Blake's various works reflect his own vision of human salvation through the state of dynamic morality in which everything can harmonize and coexist.

Ⅰ. 서론

18세기 말엽에 시작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영국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기존의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시장 경제 체제가 도입되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게 됨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또한 양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인간까지도 기계화하는 인간성의 물신화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간성 상실이라는 비인도주의적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인간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새롭게 인간성의 회복, 즉 인류의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켜보려는 예술가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예술가들 중에서도 특히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는 독창적인 예술적 꿈을 추구하였던 시인으로서 그의 생애와 작품은 주목해 볼 가치가 있다.

시인이자 화가이면서 동판그림조각가이기도 했던 블레이크는 뛰어난 상상력의 소유자로서 맑고 순수한 서정시로부터 비판적인 시각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경험의 시와 독자적인 상징체계를 구축한 후기의 난해한 예언 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적 스펙트럼을 지닌 천재적인 예술가였다. 블룸(Harold Bloom)은 블레이크의 비범한 천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 윌리엄 블레이크의 개념의 힘은 비범하였으며; 그의 정신은 단테,
> 셰익스피어 그리고 밀턴의 정신세계만큼이나 강력하고 독창적이었다.
>
> His conceptual powers were extraordinary: his mind
> was as powerful and original as Dante's, Shakespeare's,
> and Milton's.[1)]

시대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었다고 보이는 이러한 블레이크의 천재성과 산업사회의 갖가지 병폐와 모순 등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았던 시인의 통찰력은 블레이크 자신만의 독특한 상징체계를 이루었기에 대중들의 관심으로부터는 다소 벗어나 있었다. 따라서 블레이크의 타고난 예술성은 그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19세기 전반기 내내 무명시인이었던 블레이크의 시는 19세기 후반에 접

---

1) Harold Bloom, *Genius : A Mosaic of 100 Exemplary Creative Minds* (New York: An AOL, Time Warner Company, 2002), p. 696.

어들면서 차츰 독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여 그의 순수와 경험의 서정시들이 읽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블레이크의 후기의 예언시들은 해석상의 난해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1920년대에 그의 예언시가 알려지기 시작하여, 20세기 중반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그의 후기 시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접근하는 비평들이 대두되었으며, 시인의 사회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2)]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그의 시는 비범한 비전과 상상력을 가진 작품으로 다양하게 재해석되고 있으며, 그의 작품이 이렇게 재조명됨에 따라 그는 위대한 선각자 시인 중 한사람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블레이크 연구가 중의 한 사람인 불룸은 블레이크를 가리켜 공상가이며 시인, 화가이자 "신, 구약 성경을 예술의 위대한 법전"(The Old & New Testaments are the Great Code of Art.)이라고 보았던 천재시인으로 묘사하면서, 모든 사물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생각했던 블레이크의 상상력에서 그의 예술의 정수를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한다[3)]

블레이크의 작품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볼 때 전기의 작품으로는 31편의 시가 담긴 『순수의 노래』(*Songs of Innocence*)(1789)와 『순수의 노래』에 23편의 시를 더 추가하여 1794년에 출간된 『순수와 경험의 노래』(*Songs of Innocence and of Experience*)가 있으며, 후기의 작품으로는 *Milton*(1808)과 *Jerusalem*(1808-18) 등의 난해한 예언시들이 있다.

18세기 말엽 영국은 기계화된 삶과 산업사회의 갖가지 병폐, 모순 등으로 인간성을 상실한 채 부패해가고, 인간의 타락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영혼은 고통의 와중에서 더욱 고립되게 되었다. 블레이크의 순수(Innocence)의 세계는 인간의 순수한 진실이 살아있는, 인간본성이 상실되기 이전의 낙원을 나타내는 상징적 용어이다. 또한 순수는 세상 만물에 내재해 있는 신성과의 교류를 통해 인간에게 환희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아이와 양과 사자가 본성이 억제되지 않은 채 예수의 모습을 상징하는 순수의 세계는 에덴동산을 연상케 할 정도로 악한 기운이 침입하지 않는 안식의 상태이다.

생명을 가진 모든 형상은 시인의 상상력으로 성스러운 존재가 되며, 시인 자신은 순수를 노래하고 양을 지키는 양치기가 된다. 더구나 상상력을 통한 환상 속에서 시인은 아이와 양과 사자로서 예수의 모습을 띤다. 이처럼 블레이크의 예술 활동은

---

2) 강 옥선, 『블레이크와 작은 천국』(서울: 동인출판사, 2004), p. 375.
3) Bloom, *op. cit.*, p. 694.

그의 상상력을 토대로 구축된다.

블레이크는 상상의 세계와 자기의 작품의 본질에 대하여 그의 작품 중의 하나인 『최후심판의 환상』(*A Vision of The Last Judgement*)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 상상의 세계는 영원의 세계이다. 영원의 세계는 생장된 몸이 죽은 뒤에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품이다. 이 상상의 세계는 무한하고 영원하다. 반면에 생성 혹은 생장의 세계는 유한하고 덧없는 것이다. 영원한 세계에는 우리가 자연이라는 식물성 거울에 반영된 모든 사물의 영구적인 실재들이 존재한다.
> 내 작품의 본질은 환상적 혹은 상상적이다. 그것은 옛 사람들이 황금시대라 부른 것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
> This world of Imagination is the world of Eternity; it is the divine bosom into which we shall all go after the death of the Vegetated body. This World of Imagination is Infinite & Eternal, whereas the world of Generation, or Vegetation, is Finite & [for a small moment.] Temporal. There Exist in that Eternal World the Permanent Realities of Every Thing which we see reflected in this Vegetable Glass of Nature. The Nature of my Work is Visionary or Imaginative; it is an Endeavour to Restore what the Ancients call'd the Golden Age. (Blake p. 605)[4]

순수의 세계에서 희망적인 비전은 신이 존재한다는 순진한 믿음(naive faith)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러한 순진한 믿음을 바탕으로 신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가 되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순수의 세계에서는 모든 대립되는 요소들이 공존하여 화합하고 서로 다른 인간의 개성도 존중되고 조화를 이룬다.

반면에, 경험(Experience)의 세계는 타락하고 음울한 현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블레이크의 『경험의 노래』(*Songs of Experience*)에 잘 나타나 있다.

신과 인간의 분리로 인간은 신성을 상실하게 되고, 순수한 상상력 대신 이성의

---

4) William Blake. "A Vision of The Last Judgement." *The Complete Writings of William Blake: With Variant Readings*. Ed. Geoffrey Keynes (London and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6), p. 605.

지배를 받게 된다. 그 결과 동정심과 이타심은 이기심으로 변하게 되고, 이것은 사회적, 개인적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즉, 이것은 사회적으로는 종교적 억압의 양상으로, 개인적으로는 왜곡된 사랑과 무관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명분만 남은 종교는 인간에게 진정한 인간구원의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여 종교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급기야 인간을 억압하는 지경에 이른다. 사랑의 개념도 본래의 의미를 잃고, 이기적이고 구속하는 왜곡된 모습으로 타인을 구속하게 된다. 이처럼 상상력이 결핍된 세계에서는 인간의 이기심이 온갖 제약과 굴레를 만들어내어 진정한 소통이 없는 고립되고 단절된 상태가 지속된다.

그러나 블레이크는 타락하기 이전의 원초적인 신성을 회복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는 신성(Divinity)이 들어있어서 인간은 다시 순수의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며, 타락하기 이전의 원초적인 신성을 회복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인간성의 회복을 추구하고 타고난 신성을 회복하는 것이 블레이크의 시작(詩作)의 근본이 되었다고 본다.

블레이크는 『순수와 경험의 노래』(*Songs of Innocence and of Experience*)의 이미지를 통해 순수와 경험의 세계가 신에 대한 이타애의 근원으로 작용하여 그 세계에서 상상적으로 그려지는 신은 창조물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과 동정심과 자비를 베푸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인간 역시 타인에 대한 동정심과 이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신성을 발휘하여, 비로소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블레이크의 관점과 사상을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Ⅱ장에서는 블레이크의 전기 시의 주된 양상인 대립(contraries)에 초점을 맞추어 대립이 어떻게 진보(progression)의 양상으로 나아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블레이크의 시에 나타난 대립과 진보의 양상을 바탕으로 하여 끌어당김과 밀어냄, 사랑과 미움, 에너지와 이성, 선과 악과 같은 대립적 세력들이 서로 공존하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제 Ⅳ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에서 논의 하는 내용과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신성을 회복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시인의 믿음을 바탕으로 순수와 경험의 노래에 반영된 신성과 인간구원의 비전(The vision of salvation)을 열린 동적 윤리의 세계를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Ⅱ. 순수와 경험의 대립의 양상

‘인간 영혼의 두 가지 대조되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Shewing the Two Contrary States of the Human Soul)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Songs of Innocence and of Experience*는 순수의 노래(*Songs of Innocence*)와 경험의 노래(*Songs of Experience*)에 속하는 각각의 시들로 이루어져있다. 여기서 순수의 세계는 새로 태어난 영혼의 상태로, 목가적 세계에서의 아이들이 이 세계를 대변하며, 이 세계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동물은 유순한 양(아기 예수와 상징적으로 동등한)이다.

블레이크는 S*ongs of Innocence*에서 인간 타락 이전의 낙원을 근간으로 하여 나름대로의 독특한 이상향을 구현해내고 있다. 타락 이전의 에덴동산은 인간의 사랑과 상상력이 충만한 세계이며 시기, 질투, 증오나 분노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무결한 세계이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성인이 되어가듯이, 순수의 세계는 필연적으로 경험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의 세계는 물질주의와 가난, 매춘, 질병 그리고 전쟁 등의 성인의 세계의 모습으로 *Songs of Experience*에 표상되어 나타난다.

블레이크에 있어 타락한 경험의 세계는 보다 고양된 순수 속에서 구원을 달성하기 위해 영혼이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상태이다. 그의 시집 표지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블레이크는 *Songs of Innocence*와 *Songs of Experience*가 “인간 영혼의 두 가지 대조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지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블레이크는 이러한 ‘인간 영혼의 두 가지 대조적인 상태’에서 그의 시를 두 가지 주된 표제로 분류하였으며, 그 두 표제에 중요한 차이를 부여하였다. 그는 또한 그의 작품을 정렬하는 데 있어서, “대립이 없이는 진보도 없다.”(Without contraries is no progression.)라는 자신의 금언을 따랐는데, 그 대립은 그에게 많은 것을 의미하였다. “Without contraries is no progression.”과 같은 블레이크의 금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독자는 ‘contraries’와 ‘progression’이라는 단어에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progression’이 지향하는 바는 대립되는 요소들이 얽혀있는 현재의 상태를 넘어선 ‘질서와 조화의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질서와 조화의 세계는 대립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며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유지된다. 따라서 대립과 진보는 모두 필요한 것이며, 대립이 없고 움직임이 없는 닫힌 상태가 반생명의 상태인 것이다.

블레이크의 작품에 있어서 대립은 단순히 순수와 경험의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구별하여 대조하고 특정 세계를 추구해야하는 이상향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세계를 서로 순환적으로 관련지어 시인 자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수렴해 간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블레이크는 *Songs of Innocence*와 *Songs of Experience*를 분리해서 읽되 결코 대조적인 상태로 읽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블레이크는 순수와 경험은 우리 인간이 통과하는 영혼의 상태로, 어떤 것도 최종의 것이 아니며, 둘 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순수와 경험은 그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우선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없는 것으로, 이것들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순환적인 관련 속에서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5)]

따라서 이제까지 블레이크의 *Songs of Innocence and Experience* 연구는 어린 시절로 표상되는 순수와, 어른의 시기 즉, 경험의 세계로 표상되는 인간의 이기심의 표출로 줄곧 분석되어져왔으나, 블레이크는 우리 독자가 순수를 반드시 어린시절에 속하는 것이고 경험은 반드시 어른의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보도록 의도하지는 않는다. 즉, 이러한 관점을 뛰어넘어서 순환적인 관련 속에 시인의 시세계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Songs of Innocence and Experience*를 어떻게 분석하여야 할 것인지, 시인이 그의 시세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이다. 시인이 사용한 시어의 중요성에서 더 나아가 독자가 *Songs of Innocence and Experience*를 읽을 때, 특히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시점'(Point of view)이다.

*Songs of Innocence and Experience*의 "Introduction"에 나타난 화자는 각각 Piper와 Bard인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흐름에서 볼 때, Innocence와 Experience는 각기 속해있는 상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Piper와 Bard라는 화자의 관점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즉 현재 순수(Innocence)의 상태에 머물고 있어 경험(Experience)의 상태를 겪어보지 않은 Piper와 이미 Innocence 상태를 지나 Experience 상태에 접어든 Bard가 동일한 시각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6)] 이러한 시점의 차이가 서로 매우 다른 두 세계를 창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블레이크의 *Songs of Innocence and of Experience*의 첫 번째 부분인 *Songs*

---

5) 김 종윤. 『현대영시론』(서울: 한신출판사, 1980), p. 148.

6) Harold Bloom, *William Blake's Songs of Innocence and of Experience*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5) p. 14.

*of Innocence*는 상상적인 순수의 상태의 비전을 제시한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험의 세계는 어떻게 삶이 순수의 상태의 상상적인 비전에 도전하고 부패하며 그것을 파괴하는가를 보여준다. *Songs of Innocence*에서 사용된 시인의 상징은 주로 성경에서 인용된 것으로, Good Shepherd와 Lamb of God과 유사한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가 의미하는 것을 보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Songs of Experience*에서 블레이크는 Tyger나 Clod, Pebble과 같이 그 자신이 만든 독창적인 상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정의하는 데 보다 어려움이 있다. 사실상, 윌리엄 블레이크의 경험의 시들 중 일부는 블레이크의 후기 예언시에 사용되는 상징들을 참고함으로써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만 시인이 사용한 대부분의 상징들은 그 의미에 있어 지속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다.

블레이크의 *Songs of Innocence and Experience*에서 시인이 추구하는 이상향의 모습을 보면 그의 종교관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인간 위에 군림하는 초월적 신을 배격하고 인간 안에 내재하는 신성이 발휘된 신, 즉 내재적 신을 믿었던 그로선 신과 인간이 동일선상에 위치했던 에덴동산을 그의 이상향으로 삼은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바우라(C. M. Bowra)에 따르면 블레이크에게 있어서 신은 인간 내부에 잠재된 신성("God is the divine essence which exists potentially in every man and woman.") 으로 압축된다.[7)]

블레이크의 이상향이 신과 인간의 밀접한 관계를 배제하고는 설명될 수 없음은 도입부의 "Introduction"에서도 암시되고 있다. *Songs of Innocence*의 "Introduction"에서는 'the piper'가 시를 이끄는 주체가 되고, *Songs of Experience*의 "Introduction"에서는 'the bard'가 주체이다.

이 시의 중요성은 시의 소재로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데 있다. 우선 *Songs of Innocence*의 "Introduction"은 piper가 구름 위에 있는 어린이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여기서 Innocence 세계를 대변하는 piper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Experience 세계의 화자가 bard라는 예언자라는 것과 대조된다.

아이(child), 양(lamb) 그리고 피리 부는 사람(piper)의 모습은 이처럼 *Songs of Innocence*를 대표하는 "Introduction"에 잘 나타나 있다. *Songs of Innocence*의 도입부인 "Introduction"은 인간의 문명에 지배되지 않은 평화와 자유가 넘치는 자연의 목가적인 분위기를 띠며, 이러한 분위기는 *Songs of Innocence* 전편에 걸쳐

---

7) C. M. Bowra, *The Romantic Imagination* (London: Oxford Univ. Press, 1975), p. 54.

나타난다. 그러면 먼저 “Introduction”을 통해 순수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에서 대립(contraries)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대립이 어떻게 진보(progression)로 나아가는지 살펴보겠다.

즐거운 환희의 피리를 불며
거친 계곡으로 내려가면서,
나는 구름 위의 한 아이를 보았다.
그 아이가 웃으며 내게 말을 했다.

“양에 대한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나는 흥겨운 가락으로 연주했다.
“그 노래 다시 연주해 주세요.”
나는 연주했고, 그 아이는 눈물을 흘렸다.

"당신의 파이프를 내려놓고
행복한 노래를 불러줘요."
그래서 나는 다시 같은 노래를 불렀다.
이번엔 그 아이가 듣고 기뻐서 울었다.

Piping down the valley wild,
Piping songs of pleasant glee,
On a cloud I saw a child.
And he laughing said to me:

"Pipe a song about a Lamb!"
So I piped with merry cheer.
"Piper, pipe that song again;"
So I piped: he wept to hear.

"Drop the pipe, thy happy pipe;
"Sing thy songs of happy cheer:"

So I sung the same again,
While he wept with joy to hear.[8](p. 111)

Innocence 세계에서 Piper는 Innocence의 속성을 그대로 대변하는 인물이다. Piper에게 창조적 동기를 불어넣어주는 어린이는 마치 작가에게 창조적 욕구를 불어넣어주는 신의 전령 역할을 하는 듯 보인다. 서정시의 특징이 그러 하듯이 *Songs of Innocence*와 *Songs of Experience*는 시인의 어떤 특정한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며, 그의 시에서 묘사되는 아이들과 목동 그리고 그 외의 인물들은 개별적인 인간이 아니라 인간성의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다.

블레이크가 그의 시집의 첫 페이지에서 언급하였듯이, 그 두 세계의 시들은 오직 함께 읽혀지도록 만들어졌으며 '인간 영혼의 두 대조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Songs of Innocence*와 *Songs of Experience*를 함께 읽음으로써 삶과 경험의 실제 그리고 그 시들 뒤에 놓인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9]

평화로운 시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Songs of Innocence*에서 목동과 어린이의 노래인 "Introduction"은 '모든 아이들이 듣는 것을 즐기는' 행복한 노래로 들릴 수 있다. 즉, 숙고하지 않고 그것을 즐기기에 충분하며 단순히 독자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묘사로써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들은 한 차원 더 높게 읽혀질 수도 있는데, "Introduction to the Songs of Experience"(The Bard's Song)와 비교하여 읽음으로써 보다 다양한 수준에서의 이해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므로 *Songs of Experience*의 "Introduction"(The Bard's Song)을 통해 블레이크가 묘사하고자 하였던 순수와 경험의 대조적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시인의 음성을 들어라!
그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본다.
그의 귀는 듣고 있다.

---

8) Geoffrey Keynes. ed. *The Complete Writings of William Blake: With Variant Readings* (London and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6), p. 8. 이후로 인용된 시의 원문은 이 책의 쪽수로 표기함.
9) D. G. Gillham, *William Blake* (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73) p. ix.

그 옛날 나무 사이를 거닐던
그 거룩한 말씀을.
저녁이슬 속에 눈물지으며
타락한 영혼을 부른다.
별이 총총히 빛나는
북극을 다스리고
그리고 타락한, 타락한 빛을 새롭게 할지도 모른다!

Hear the voice of the bard!
Who present, past and future sees
Whose ears have heard
The holy word,
That walk'd among the ancient trees
Calling the lapsed ancient soul
And weeping in the evening dew;
That might control
The starry pole;
And fallen, fallen light renew! (p.105)

Experience 세계의 Introduction과 Innocence 세계의 Introduction은 그 소재 및 화자의 어투,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Innocence 세계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piper에게 노래를 부르고 파이프를 연주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Experience 세계에서는 예언자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명령한다. 데이먼(Damon)은 『*A Blake Dictionary*』에서 "바드는 그 옛날 대단한 권위를 가진 켈트족의 시인 겸 예언자였다."(A Bard was a Celtic poet-prophet, of great antiquity and authority)라고 바드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10]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시에서 바드는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으며 그 옛날 에덴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을 상기한다.

이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상상력의 소유자였던 시인이 에덴동산에서

10) Foster Damon. *A Blake Dictionary: The Ideas and Symbols of William Blake* (Hanover and London: Univ. Press of New England, 1988), p. 36.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타락한 영혼을 새롭게 하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Songs of Innocence*와 *Songs of Experience*에서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는 시인의 시세계에 대해 바우라는 블레이크가 *Songs of Experience*를 작시할 때 '정신적인 위기'(spiritual crisis)를 겪은 것으로 보고 있다.[11)]

그러나 이와는 달리 블레이크의 '존재의 순환'(Cycle of Being)의 견지에서 본다면, 경험의 세계는 '고차원의 순수'(Higher Innocence)로 들어가기 위해 경험이라는 고통의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사랑과 애정이 아니라, 질투, 잔인, 위선, 이기심 등이 지배하는 세계인 경험의 세계를 통과하면서 한 차원 높은 보다 '고차원의 순수'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경험과 순수의 노래에 속하는 각각의 시들은 그 자체로 감상 될 수 있지만, 쌍을 이루는 시와 함께 읽혀짐으로써 보다 철저하게 탐구될 수 있으며, 통일성 있는 목적이 점차 명백해진다. 이러한 의도는 블레이크의 *Songs of Innocence and Experience*에서 쌍을 이룬 시들을 관찰함으로써 명백하게 알 수 있다.

*The Songs of Innocence*와 *The Songs of Experience*는 같은 제목과 소재를 가지고 상이한 전개방식을 취하여 대조되는 주제를 이끌어내는가 하면, 각각의 시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도 대립적이다. 시인은 이처럼 Innocence와 Experience의 선과 악의 이원적 상징성에 대해 의도적으로 분명한 대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Innocence의 "Introduction"과 Experience의 "Introduction", "The Lamb"과 "The Tyger", "Nurse's Song"과 "Nurse's song", "Infant Joy"와 "Infant Sorrow", "Holy Thursday"와 "Holy Thursday", "The Chimney Sweeper"와 "The Chimney Sweeper", "The Little Boy Lost"와 "The Little Girl Lost", "The little Girl Found"와 "The Little Boy Found", "The Divine Image"와 "A Divine Image" 등이다.

이처럼 이 시들은 블레이크에 의해 의도적인 대조의 형식을 취하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두 세계의 시들을 이해하는데 있어 독자는 비교와 대조의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즉, 예를 들어 *Songs of Innocence*와 *Songs of Experience*에는 각각 하나의 "Holy Thursdays"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 모든 시들이 그 상대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단초가 된다.

또한 *Songs of experience*에서 "The Sick Rose"는 *Songs of Innocence*의 "The Blossom"과 함께, 그리고 "The Tyger"와 "The Lamb"도 서로 대조를 이

---

11) Bowra, *op. cit.,* p. 57.

루어 함께 읽음으로써 보다 깊이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이러한 대조의 형식으로 두 시에 접근함으로써 하나의 시가 다른 하나의 시에 더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독자가 두 시의 이해에 있어서 각각의 시가 내포하고 있는 것을 더 잘 식별할 수 있게 되고, 그 속에 내포된 순환적인 관련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Infant Sorrow”를 그 상대시인 “Infant Joy”와 함께 읽는다면 이해의 지평은 더 넓어질 것이다.

나의 어머니는 신음했네! 나의 아버지는 우셨지.
위험한 세상으로 나는 뛰어들었네.
나약하게, 벗은 몸으로, 빽빽 울부짖으며,
마치 구름 속에 숨은 악마처럼.
나의 아버지의 손에서 발버둥치며,
배내옷 끈에 저항하여 몸부림치다가,
그 속박에 지쳐서 나는 생각하게 되었다.
내 어머니의 품에서 칭얼대는 것이 최상이라고.

My mother groaned! my father wept.
Into the dangerous world I leapt;
Helpless. naked. piping loud;
Like a fiend hid in a cloud.

Struggling in my father's hands,
Striving against my swaddling bands,
Bound and weary I thought best
To sulk upon my mother's breast.(p.166)

“전 이름이 없어요,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되었거든요."
너를 무어라고 부를까?
"난 행복이어요,
기쁨이 제 이름이랍니다."

달콤한 기쁨 네게 있어라!

어여쁜 기쁨아!
달콤한 기쁨, 이틀바기야,
난 너를 달콤한 기쁨이라 부르겠다
웃음을 지어보렴
그 동안 난 노래 불러줄 터이니
달콤한 기쁨 네게 있어라

I have no name
I am but two days old -
What shall I call thee?
I happy am
Joy is my name. -
Sweet joy befall thee!

Pretty joy!
Sweet joy but two days old.
Sweet joy I call thee:
Thou dost smile.
I sing the while
Sweet joy befall thee.(p.118)

이러한 시들에 단일하게 직면하여서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는 'How true a representation of babyhood!' (어린이의 표상은 얼마나 진실된가!)와 같을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두 시들이 함께 읽혀질 때는 'How different the representations are.'(그 표상들은 얼마나 다른가.)와 같은 반응을 덧붙이게 될 것이다.[12] 아기들은 다양한 감정을 가지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의 감정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바라본다. 그리고 사람들은 유아기에 대해 저마다의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Infant Sorrow"와 "Infant Joy"는 유아의 또 다른 그림을

12) Gillham, *op. cit.*, p. 2.

제시하는데, 순수의 화자와 경험의 화자는 유아를 바라보는데 있어 다른 시각을 취하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대조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Infant Joy”에서와는 대조적으로 “Infant Sorrow”에서 “아버지의 손”과 “배내옷 끈”은 어린 아이의 자유로운 행동을 억압하는 상징으로 나타난다. 아이에게 기쁨을 주고 보호해 주어야할 아버지가 억압의 주체가 되고 있음은 경험세계의 불행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각 시에서 화자의 말하는 방식도 그 차이를 강조하는데, “Infant Sorrow”는 독백의 형식을 취하며 운율적으로 더 공식적인 반면에 “Infant Joy”는 형태상으로 대화문이며, 짧고 불규칙한 행과 단순하고 영향력 없이 반복되는 순차적인 감정의 자발성에 적합한 문체를 취한다. 그러면, 이처럼 대조적 양상을 보이는 블레이크의 *Songs of Innocence*와 *Songs of Experience* 비교를 통해 시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대해 제 Ⅲ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열린 윤리와 닫힌 윤리의 세계

Ⅱ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블레이크는 그의 작품의 주된 특징인 대립과 대조(contraries)를 통해 궁극적으로 진보(progression)를 지향하였다. 이러한 Progression의 세계는 질서와 조화로 표상되며, 대립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며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유지되는 세계이다. 따라서 블레이크가 주장한 ‘질서와 조화의 상태’가 있기 위해서는 대립과 진보는 모두 필요한 것이며, 대립이 없고 움직임이 없는 닫힌 상태는 상호작용이 없는 반생명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김영무에 따르면 ‘Progression’이 있기 위해서는 대립 모순되는 요소들이 공존해야 한다고 할 때, 끌어당김과 밀어냄, 사랑과 미움, 에너지와 이성, 선과 악 따위의 대립적 세력들이 존재하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먼저 이러한 대립 모순의 요소들이 적극적인 상호갈등을 되도록 피하고 제각기 자기 나름의 독자성과 개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경우, 즉 각자의 원리에만 충실하여 상대방의 원리에 개입하지 않는 상태를 생각할 수 있다. 이 상태는 각자의 원리에만 충실하여 상대방의 원리에 개입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김영무는 이것을 순결(Innocence, Chastity)의 세계라고 부른다.

두 번째로 대립되는 요소들의 상호대립이 첨예화하여 한쪽이 다른 한쪽을 강제로 정복하고 억압해서 병합해버리는 경우를 생각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억압적인

정적 윤리의 세계(static morality)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립 모순의 세력들이 서로 자기 나름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팽팽한 균형 속에 화해하여, 어떤 보다 높은 열려있는 전체적 질서 속에 동적인 조화를 이루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역동적 윤리의 세계(dynamic morality)라고 칭할 수 있다. 이 역동적 윤리의 세계는 사랑과 용서에 의해 최고의 연대성(solidarity)과 최고의 개성(individuality)이 공존하는 세계이다.[13] 따라서 이러한 역동적 윤리의 세계를 통해 대립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 진보(progression)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며, 블레이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였던 세계도 바로 모든 것들이 공존하며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윤리의 세계라고 하겠다.

그러면 위에서 언급한 블레이크의 시에 나타나는 대립적 요소들의 존재방식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대립 모순의 요소들이 적극적인 상호갈등을 피하고 제각기 자기 나름의 독자성과 개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 질서의 세계는 innocence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기본원리이기는 하지만,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 세계의 윤리로 작용하며 끊임없는 역동적 상호작용은 일어나지 않는 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블레이크의 시 “The Ecchoing Green”은 이러한 개인적 윤리의 세계(순결의 세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태양이 솟아
하늘을 즐겁게 하고
즐거운 종소리가 울려
봄을 맞아들인다.
종달새, 지빠귀
관목의 새들이
주위에 더 크게 노래한다.
종의 명랑한 소리에 맞추어
여러 가지 소리가 울려퍼지는
풀밭에서 우리가 노는 동안.

---

13) 김 영무, 「William Blake의 詩世界」, 『영어영문학』, (한국영어영문학회 No. 63, Autumn 1977), p. 32.

The Sun does arise,
And make happy the skies
The merry bells ring
To welcome the Spring.
The sky-lark and thrush,
The birds of the bush,
Sing louder around,
To the bells cheerful sound.
While our sports shall be seen
On the Echoing Green. (p.116)

이 시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즐겁고 유쾌하다. 태양과 하늘과 종소리는 각자의 순결을 유지함으로써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종달새와 지빠귀의 노랫소리도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 또 푸른 초원의 이미지와 그곳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함성을 포함하여 숲 속 구석구석에 즐거움의 노래가 메아리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시에서는 높이 솟아있던 해가 저물어가면서 '메아리치는 들판(ecchoing green)'은 '저물어가는 들판(darkening green)'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지는 해의 이미지와 휴식의 상태에 들어간 새들과 아이들의 '침묵의 메아리'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순수의 세계에서는 'Progression'(진보)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대립과 갈등의 세력들이 적극적인 충돌 없이 평화롭고 긴장이 없이 공존하고 있다. 즉 서로 모순되는 원리들이 충돌하지 않고 각자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개인적 윤리를 형성하고 있다.[14)]
이러한 개인적 윤리의 양상은 "The Blossom"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즐겁고 명랑한 참새야
초록빛 나무 아래서
행복한 꽃이 보고 있구나.
화살처럼 빠른 네가

14) *ibid.*, p. 33.

내 마음의 꽃 가까이서
작은 둥우리를 찾는 것을

예쁘고 귀여운 방울새야
초록빛 나뭇잎 아래서
행복한 꽃이 듣고 있구나.
예쁘고 귀여운 방울새 네가
내 마음 가까이서
울며 흐느끼는 것을.

Merry Merry Sparrow
Under leaves so green
A happy Blossom
Sees you swift as arrow
Seek your cradle narrow
Near my Bosom.

Pretty pretty Robin
Under leaves so green
A happy Blossom
Hears you sobbing sobbing
Pretty Pretty Robin
Near my Bosom (p.137)

이 시에서 sparrow로 상징되는 사랑은 화살처럼 공격적이고 정력적이며 개인적인 사랑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적인 사랑의 이면에는 robin으로 상징되는 순박하고 겸손한 사랑도 존재하는데, 즉 passion 과 compassion이 상호갈등 없이 공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브라이언(Brian)에 따르면 이러한 공존은 능동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여 자신의 세계 속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없는 상태로 존재한다.[15)]

15) John Brian, *Supreme Fiction: Studies in the Works of the William Blake and Others* (Montreal: McGill-Queen's Univ. Press, 1974), p. 31.

이처럼 개인적 윤리의 세계에서 순수의 모습은 개개의 대립적인 힘들이 적극적인 갈등을 피하고 자기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개인적 질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개인적 윤리의 세계 이외에도 닫힌 정적 윤리의 세계와 열린 동적 윤리의 세계가 함께 공존함을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 먼저 구체적인 현실 상황에서 닫힌 정적 윤리의 세계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The Garden of Love"를 통해 살펴보겠다.

*Songs of Innocence*에서 블레이크는 닫혀진 정적 윤리(static morality)의 폐쇄성과 폭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The Garden of Love"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The Ecchoing Green"의 푸르른 사랑의 동산이 무덤과 금지라는 억압적 율법이 통제하는 정원의 모습으로 바뀌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나는 사랑의 정원으로 갔다네.
그리고 이제까지 본적 없는 것을 보았네.
예배당이 중앙에 서있었다네.
내가 놀곤 했던 잔디밭에.

이 예배당 문은 잠겨져 있었고,
"해서는 안된다."라는 문장이 문 앞에 적혀있었네.
그래서 나는 사랑의 정원으로 돌아왔다네.
그렇게 많은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있는;

그리고 나는 보았네. 그것들이 무덤으로 가득 차있는 것을,
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묘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검은 가운을 입은 사제들이 돌아다니며,
가시덤불로 내 기쁨과 욕망을 묶고 있었다네.

I went to the Garden of Love,
And saw what I never had seen;
A Chapel was built in the midst,

Where I used to play on the green.

And the gates of this Chapel were shut,
And Thou shalt not. writ over the door;
So I turn'd to the Garden of Love,
That so many sweet flowers bore,

And I saw it was filled with graves,
And tomb-stones where flowers should be:
And Priests in black gowns, were walking their rounds,
And binding with briars, my joys & desires. (P.129)

이제 “The Ecchoing Green”의 푸르른 사랑의 동산에는 교회가 건립되었고, 굳게 닫힌 교회의 문에는 “Thou shalt not”이라는 금지의 표지만이 새겨져 있다. 이처럼 “The Garden of Love”에서는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허울뿐인 종교의 모습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던 사랑의 뜰은 무덤으로 바뀌어 비석들만이 서있다.
거기에 까만 가운을 입은 음울한 분위기의 성직자가 어린아이와 성인을 억압하고 군림하는 모습도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억압적인 종교의 모습을 표상한다. 이러한 차가운 사제의 모습은 어린 아이들의 기쁨과 욕망을 억압하고, 따라서 어린이의 생명력은 성직자로 표상되는 억압적 종교에 의해 그 생명력을 잃고 지배당한다.[16)]

그런데 이러한 음침하고 폐쇄적이며 억압적인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는 시의 제목이 “The Garden of Love”라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다. 블레이크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아이러니와 반어법을 통해 보다 억압적인 종교의 모습을 보다 신랄하게 비판하고자 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억압적이고 타락한 종교의 모습은 *Songs of Experience*에 속하는 시인 “The Chimney Sweeper”에서도 나타난다.

이 시는 *Songs of Innocence*의 같은 제목의 시와 비교되는 작품으로 아이들에게 지워진 고통과 억압의 현실, 그리고 타락한 종교에 대한 질타를 담고 있다는 점

16) 김 영무, *op. cit.,* p. 37.

에서 두 시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Songs of Innocence*에서 "The Chimney Sweeper"는 결국 천사의 구원을 통해 억압의 상황이 자유로 바뀌는 반면 *Songs of Experience*에서는 모진 현실의 비참함 속에 어린 굴뚝청소부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내버려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작고 검은 것이 눈 속에서
슬픈 가락으로 울부짖네 '굴뚝 청소하세요!' '굴뚝 청소하세요!'
엄마와 아빠는 어디 계시니? 말해보렴?
두 분 다 기도하러 교회에 가셨어요

풀 무성한 황야에서 제가 즐거워하고
겨울 눈 속에서 미소 지었더니
엄마 아빤 저에게 죽음의 옷 입혀주고
슬픈 가락의 노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즐겁게 춤추고 노래 부르니
엄마 아빤 어떤 해도 입히지 않은 줄 알고
하나님과 사제와 임금을 찬양하러 가셨어요.
우리들의 비참으로 천국을 꾸미는 그분들을.

A little black thing among the snow,
Crying 'weep!' 'weep!' in notes of woe!
Where are thy father & mother? say?
They are both gone up to the church to pray.

Because I was happy upon the heath,
And smil'd among the winter's snow,
They clothed me in the clothes of death,
And taught me to sing the notes of woe.

And because I am happy & dance & sing,

They think they have done me no injury,
And are gone to praise God & his Priest & King,
Who make up a heaven of our misery. (p. 117)

이 시에 나타난 생생한 묘사는 블레이크가 살던 시대의 사회상과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 시에서는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산업사회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어린 아이들이 굴뚝 청소부로 혹사당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영국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이 유아(Infant)도 되기 전에 굴뚝청소를 하도록 훈련 받았다고 한다. 어린아이들의 작은 몸집은 좁은 굴뚝에 들어가 청소하기에 적당하였으며, 어른들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이다. 어린 굴뚝청소부들은 이른 새벽부터 뜨거운 굴뚝에 들어가 청소를 해야 했고, 뜨거운 굴뚝재로 인한 여러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왓슨(J.R. Watson)은 1연에서 아이들이 “weep, weep”이라고 외치는 것은, 굴뚝청소를 하는 아이들이 아직 말도 제대로 배우기 이전의 나이인 것을 암시한다고 주장한다. 즉 “sweep”을 “weep”이라고 외치는 것에서 이들이 아직 말도 배우기 이전의 나이임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17]

이 시에서는 어린아이가 위험한 굴뚝 청소를 하도록 내버려 진 상태에서 아이의 부모는 기도를 하러 교회에 가버리고 없다. 이러한 장면은 4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자신의 아이를 고통과 절망 속에 남겨둔 채 그들의 부모는 교회에 기도를 하러 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 속에서 부모와 교회는 신을 믿는다는 명목 하에 어린 아이를 힘겨운 노동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며 방관자의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이 시는 궁극적으로 비참한 현실 속의 인간의 상태와 타락한 종교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블레이크는 왕과 사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그의 후기시에서 억압적 이성을 대변하는 유리즌(Urizen)과 같은 사회의 폭군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Infant Sorrow”에서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속박하는 상징으로 묘사된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The Chimney Sweeper”에서 부모가 아이를 수익성의 도구, 즉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연에서 굴뚝 청소하는 어린이를 가리켜 ‘A little black thing’이라고 부르는 화자의 말에서는 어떠한 온정도 내포되어 있지 않고, 어린이를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닌 물건

17) J. R. Watson, *English poetry of the Romantic Period 1789-1830*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85), p. 82.

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연에 나타난 굴뚝을 청소하는 어린이의 말에서 이러한 폐쇄적이고 정적인 윤리의 일면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닫힌 윤리의 세계는 블레이크의 시에서 주로 종교와 국가의 억압적인 율법과 경직된 제도 등으로 나타난다. 이 시에서는 이처럼 종교가 인간을 정복하고 억압하며, 모든 인간이 고립되고 단절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묘사를 통해 닫힌 윤리의 세계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경험의 세계에서는 인간 구원의 실현을 추구해야할 종교가 제 기능을 상실한 채 타락하여, 명목뿐인 종교생활과 억압적 윤리만을 강조하고 보호해야할 어린아이들을 구속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폐쇄적 정적 윤리의 세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산업혁명 이후 영국의 시대상에 대한 블레이크의 비판의식을 반영한다. 블레이크는 19세기 영국 사회의 정치적 배경과 산업혁명시기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억압적 노동과 물질중심의 산업화 문제를 그의 시의 주제로 주로 다루었다. “The Chimney Sweeper”에서 어린아이의 노동력 착취를 그의 시의 모티브로 삼은 것도 바로 이러한 시인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의 후기의 예언시에서는 산업화 시대의 노동력의 착취를 다루고 있으며, 그의 예언시 「아메리카」("(America, 1793")에서는 물질 중심의 산업화 구조에 갇혀 억압받는 영혼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공장에서 짓눌려 있는 노예들을 들판으로 뛰어나가게 하라:
그 노예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밝은 대기 속에 미소짓게 하라;
어둠 속에 갇혀 한숨짓고 있는 구속된 영혼들,
30년의 세월동안 미소 한번 없이 지쳐버린 얼굴들;
이제 일어나 밖을 내다보라-- 사슬이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렸다.

Let the slave grinding at the mill run out into the field;
Let him look up into the heavens and laugh in the brignt air;
Let the enchained soul shut up in darkness and in sighing,
Whose face has never seen a smile in thirty weary years,
Rise and look out-- his chains are loose, his dungeon doors are open.
(p.194)

이와 같은 억압적 닫힌 윤리의 세계는 Frye가 *Fearful Symmetry*에서 힘없는 서민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강제적 율법과 도덕을 Isolated Tyranny(고립된 전제정권)과 Mob Rule(폭도 율법)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18)]

블레이크는 그의 예언시의 근저(根底)에 당대의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과 도시 노동자들이 겪었던 경제적 착취와 억압된 삶의 형태를 초월한 예루살렘과 같은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The Chimney Sweeper"이외에도 고립되고 단절된 질서의 세계를 정치적, 사회적, 문화사적 안목으로 깊이 있게 파헤치고 묘사하는 작품에는 "London"이라는 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면 블레이크의 "London"을 통해 현실의 강제적 율법과 도덕에 신음하는 London 시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나는 헤맨다 임차된 거리들을
그 근처로는 임차된 템즈강이 흐르고
만나는 얼굴 얼굴마다에서 나는 본다
나약함의 표지, 슬픔의 자국을

사람의 비명 소리마다 마다에서
모든 아기들의 겁에 질린 울음에서
모든 목소리에서 모든 금지에서
마음이 벼려 만든 쇠고랑 소리를 나는 듣는다.

굴뚝 소재하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꺼멓게 되어가는 교회를 어떻게 창백하게 질리게 하는가
불행한 병사의 한숨이 어떻게 피가 되어 궁궐 벽으로 흐르는가.

그러나 주로 한밤중에 거리거리에서 나는 듣는다.

---

18) Northrop Frye, *Fearful Symmetry, A Study of William Blake* (New Jersey: Prinston Univ. Press. 1947), p. 57.

젊은 창녀의 저주가 어떻게 갓난아기의 눈물을 말려버리고
결혼의 꽃상여를 역병으로 시들게 하는가를.

I wander thro' each charter'd street,
Near where the charter'd Thames does flow.
And mark in every face I meet
Marks of weakness, marks of woe.

In every cry of every Man,
In every Infants cry of fear,
In every voice: in every ban,
The mind-forge'd manacles I hear

How the Chimney-sweepers cry
Every blackening Church appalls,
And the hapless Soldiers sigh,
Runs in blood down Palace walls

But most thro' midnight streets I hear
How the youthful Harlots curse
Blasts the new-born Infants tear
And blights with plagues the Marriage hearse (p. 170)

이 시는 블레이크 당시의 영국사회의 부정과, 그로인해 많은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에 대한 시인의 반응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블레이크의 London은 산업혁명 이후 영국의 런던을 지배하던 모든 악의 근원을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닫힌 율법과 억압적 구조 및 제도에서 발견한다. 즉, 산업화의 결과로 인간은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체제에 놓이게 되었고, 본연의 창조적인 기능을 잃어버린 인간의 노동은 인간을 지배와 억압 하에 놓이게 한 것이다.

“London”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즉, The Man, Infant, Chimney-Sweeper, Soldier, 그리고 Harlot은 개인의 경험 뿐 아니라 인간성의 잔인한 체제(humanity's cruel establishments)를 구체화한다.

예를 들어 2행에서 “In every Infant's cry of fear”는 각각의 임자 정해진 거리(each charter'd street)에 숨어있는 위험을 상징하는 동시에 어린이의 순수의 상실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블레이크의 “London”은 '보편적인 인간의 상태(universal human condition)'를 묘사하고 있으며, 내포된 언어의 애매모호함과 해결되지 않는 역설들로 인해 다양하게 접근되며 해석된다.

1연에서는 ‘임차된 거리’(charter'd street)라는 구절을 통해 누구의 소유라고 할 수도 없는 Thames강 마저 특권 계층의 지배 아래 놓인 현실과, 자유가 속박된 런던 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연에서의 ‘charter'd’의 이미지는 2연에서 ‘ban’과 연결되어, 금지, 억압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이러한 한탄의 이미지는 ‘마음으로 빚어낸 수갑(mind-forg'd manacles)’으로 극대화된 절망을 표현한다. 이 ‘마음으로 빚어낸 수갑’이라는 표현은 블레이크의 탁월한 시적 천재성이 엿보이는 부분으로 프랑스 혁명의 시기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잉태된 공포와 억압의 분위기와 닫힌 윤리의 상태를 보여준다.[19] 그러나 강옥선에 따르면 블레이크가 이제까지 그의 다른 시들을 통해 주장하는 바를 볼 때, 이 ‘마음으로 빚어낸 족쇄’라는 표현은 급진주의적 사회의식으로 무장한 블레이크가 당시의 여성을 비롯한 어린아이, 굴뚝 청소부, 아프리카인, 오르크(Orc)와 같은 피지배자들이 ‘마음으로 빚어낸 수갑’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고발하면서 ‘인간 내면에 깃든 성스러움(All deities reside in the human breast)’을 회복하고자 한 의도가 담긴 표현이라 볼 수도 있다고 한다.[20]

또한 블레이크가 시에 있어서 상상력의 역할을 특히 중시하였던 점을 주목해 볼 때, 이 표현은 닫힌 윤리에서 오는 종교적, 사회적 억압과 단절, 상상력이 결핍된 닫힌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억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굴뚝 청소부의 울음이 모든 ‘검어져가는 교회’(black'ning church)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는 표현에서 정신적으로 타락하여 구원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검어져가는 교회는 산업 사회의 공장 굴뚝에서 쉼 없이 흘러나오는 시꺼먼 연기와도 중첩된다.

3~4연에서 피가 되어 왕궁의 성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병사의 한숨에서 독자는 전쟁의 폭력성과 통치 권력의 희생양이자 피해자로써의 개인의 약함을 보여준다. 마지막 행의 이미지는 모든 시행 들 중에서 가장 집약되어 있고 폭력적인 것으로,

---

19) Harold Bloom. "Introduction." *Modern Critical Views: William Blake*.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5), p. 11.
20) 강 옥선, *op. cit.*, p. 236.

결혼식의 이미지를 어두운 장례식의 이미지로 바꾼다. 블레이크는 사랑이 없는 결혼은 살아있는 죽음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또한 육체적인 죽음일 수도 있다. 왓슨은 생활의 고단함으로 사춘기 소녀는 창녀가 되고, 궁핍한 생활로 인해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려야 하고, 심지어는 결혼침상을 사망의 장소로 바꾸어 놓아야 하는 처참한 지경까지 전락하게 되는 것에서 이러한 젊은 창녀의 저주는 남성에 의한 쾌락추구의 대상으로써의 개인적인 슬픔에서 더 나아가, 희생자가 가해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21]
이처럼 블레이크의 "London"에서는 종교와 국가의 억압적인 율법과 경직된 제도 등에서 속박의 형태로 나타난 폐쇄적인 닫힌 윤리의 세계의 일면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종교와 억압적인 율법과 제도의 형태로 나타난 폐쇄적인 닫힌 윤리의 세계의 모습 이외에 폐쇄적인 닫힌 윤리의 세계에서 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변질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길햄(Gillham)에 따르면 폐쇄적인 닫힌 윤리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은 신성이 배제된 인간의 모습으로 구현된다. 인간은 타고난 신성을 지니고 있을 때 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신의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그러나 타락한 경험의 세계에서 나타난 사랑의 모습은 신성을 상실하여 편안과 안일함을 추구하고 상대방을 구속하려드는 이기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22]

블레이크의 시 "The Clod and the Pebble"은 사랑의 대립적인 개념(opposing conception)을 진흙과 자갈이라는 대리물의 '성격'을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 시에서 Experience 세계의 대조적인 사랑의 속성은 진흙과 자갈이 나누는 대화의 형식이라는 구조를 통해 나타난다. 대조적인 두 화자의 대화를 통해 블레이크의 이타적 사랑과 이기적 사랑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여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진흙의 이미지를 이타적인 사랑과 연결 짓고 있으며, 단단한 자갈의 이미지를 이기적이고 쾌락적인 사랑과 연결 짓고 있다.

사랑은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행복을 주고
지옥의 절망 속에서 천국을 세운다.

---

21) Watson, *op. cit.*, p. 145.
22) Gillham, *op. cit.*, p. 120.

진흙덩어리가 노래를 했다.
소 발굽에 밟히면서;
그러나 개울의 자갈 하나는
이에 답하여 다음의 소절을 노래했다.
사랑은 자신을 만족시키려 할 뿐이고
다른 이를 자신의 기쁨을 위해 묶어놓는다.
다른 사람이 행복을 잃어버릴 때 기뻐하며
천국 대신에 지옥을 건설한다.

Love seeketh not Itself to please,
Nor for itself hath only care;
But for another gives its ease,
And builds a Heaven in Hells despair
So sang a little Clod of Clay,
Trodden with the cattle's feet :
But a Pebble of the brook
Warbled out these metres meet :
'Love seeketh only Self to please,
'To bind another to its delight ;
'Joys in another's loss of ease,
'And builds a Hell in Heaven's despite.' (p. 144)

이 시는 또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 접근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진흙은 헌신적인(selfless)여성이고, 자갈은 이기적인 남성의 상징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상징물은 대조적인 특성을 보이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대립적 관계들이 존재하는 닫힌 정적 윤리의 세계에서는 한 쪽이 다른 한쪽에게 모든 것을 주고 다른 한쪽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갖는 관계를 형성한다. 이 시를 처음 접하게 될 때, 독자는 진흙을 순진함과 기독교적 사랑으로 보고, 자갈의 냉소적이고 사악한 이기심에서 벗어나 블레이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곳이 바로 이 진흙이 추구하는 바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블레이크가 이 시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아닐 수 있다. 이 시에서는 진흙과 자갈의 화해의 가능성을 전혀 제기하지 않고 있다. 진흙은 순진함의 세계에 거주하려고 하며, 자갈의 존재를 무시

하면서 지옥의 절망에 천상을 건설하려고 한다. 진흙에 의해 세워진 천상은 도덕적으로는 결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 궁극적인 환희가 있으리라고 상상하는 것도 힘들다. 순종적인 사랑은 결혼으로 상징되는 생명력 있는 균형 잡힌 관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진흙의 순종과 희생은 종속과 타락의 관계를 가져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기여하지 못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사랑의 속성을 뛰어넘어, 생명력 있고 균형 잡힌 관계로 발전하여 순환적인 열린 동적 윤리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겠다.

이처럼 *Songs of Experience*의 시들은 왜곡되고 타락한 사랑의 일면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삶을 파멸로 몰고 가는 어둡고 은밀한 사랑의 표본을 보여주는 "The Sick Rose"라는 시를 통해 닫힌 정적 윤리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또 다른 병폐적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오 장미야, 너는 지금 병들었구나
밤에 울부짖는 폭풍 속에서
날아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가
너의 침대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의 어두운 비밀스런 사랑이
너의 생명을 파괴한다.

O Rose thou art sick.
The invisible worm
That flies in the night
In the howling storm

Has found out thy bed
of crimson joy,
And his dark secret love
Does thy life destroy. (p.175)

경험의 세계에서의 사랑은 항상 병들어 있고 결국에 치명적인 파멸을 초래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The Sick Rose”에서도 장미와 벌레의 관계 의 근본을 이루는 이기적인 사랑은 결국 성적 파멸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시에서 장미는 여성을, 벌레는 남성을 상징하며, 무시무시한 폭풍우(howling storm)와 보이지 않는 벌레(invisible worm), 그리고 어두운 밤의 이미지는 불건전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결국 치명적인 파멸에 이르는 어두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 벌레가 폭풍우가 치는 밤에 불시에 침범하기 이전에 “진홍빛 기쁨의 침대” 속에 있었던 장미는 결국 어둡고 은밀한 사랑으로 인해 삶의 파멸로 치닫게 되고, 이것은 이 사랑이 진정한 소통에 의한 사랑이 아니고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위한 것이었음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를 반드시 남녀 간의 어둡고 은밀한 사랑으로만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왓슨에 따르면 억압적 이성의 상징인 유리즌의 신조가 어두움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순수한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 그 순수성을 파괴한 것으로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는 장미꽃 속에 숨어 있는 벌레가 아니라, 장미꽃의 정신적 또는 영적 질병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어두운 은밀한 사랑’을 통해서 기쁨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순수한 인간성 및 순수한 사회가 벌레 먹었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에 대해서는 ‘욕망’ 또는 인간의 마음을 괴롭히는 ‘근심’, 혹은 ‘정열’ 등 여러 가지 이론이 많으나, 경험세계에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기심, 자기본위, 위선, 질투 등을 상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3] 이런 추상적이고 억압적인 개념들은 모두 유리즌의 속성으로 블레이크의 후기 예언 시에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제까지 "The Clod and the Pebble"과 “The Sick Rose"를 통해 닫힌 정적 윤리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병폐적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에서 블레이크는 개인적 윤리의 세계나 닫힌 윤리가 지배하는 현실세계를 뛰어넘어 보다 높은 차원의 윤리, 즉 역동적 윤리를 추구한다고 주장하였듯이 독자가 블레이크 문학의 정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지향하였던 열린 동적 윤리의 세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Songs of Innocence*와 *Songs of Experience*가 한권의 책으로 묶여 출판된 1793년 무렵에 나온 블레이크의 “The Marriage of Heaven and Hell”에서 블레이크는 역설과 풍자를 통해 고전적인 선악의 이분법을 비롯한 편협한 원리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그의 사상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데, 그는 전통적인 의미

23) Watson, *op. cit.*, p. 146.

에서의 천사란 위선과 독선의 화신에 지나지 않으며 악마라고 규탄되어 오고 있는 사탄이야말로 창조적인 에너지의 상징이라고 선언한다.

이 작품에 담긴 블레이크의 사상과 주요 테마를 김영무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살아있는 모든 것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며 본능을 억제하는 데서 악이 생겨난다. 둘째, 억압적인 도덕규범은 악의 원천이다. 셋째, 에너지와 창조적 상상력이, 굳어진 이성보다 더 중요하다.[24] 여기서 우리는 전통적 윤리 규범을 부인하고 있는 듯한 블레이크의 사상에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즉, 대립이 없는 곳에는 진보가 없다고 주장하며 모든 상반되는 힘과 상태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던 블레이크가 과연 이성, 사랑, 과학, 지성 등을 배척하고 힘과 미움, 정열, 방탕 등을 삶의 최고의 원리로 주장하는 것인지에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블레이크가 주장하는 바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면 이러한 의문이 해소될 것이다. 즉, 블레이크가 배제하려고 하였던 것은 전통적 윤리 규범의 편협성이 부정하고 잘못 사용하였던 것들로 이것은 사실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전체성 속에 포용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블레이크는 모든 종류의 억압에서 벗어나 팽팽한 긴장과 조화 속에 모든 것들이 공존하는 열린 세계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역동적인 열린 세계는 Blake의 난해한 후기의 예언시에서 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이성과 법률, 종교의 억압을 표상하는 마음이 지어낸 속박(mind-forg'd manacle)에서 벗어나 인간 고유의 상상력을 통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였던 블레이크의 사상의 반영물이라고 하겠다.

블레이크의 말기의 작품들 중 “Milton”(1808)과 “Jerusalem”(1818) 등에서는 자유로운 정신과 상상력을 상징하며 예수를 의인화하고 있는 로스(Los)가 억압적 이성을 상징하는 유리즌을 물리치고 마침내 그를 용서함으로써 예루살렘(Jerusalem)을 되찾게 된다. 이것은 그 바탕에 온 세상 사람이 다 형제라고 보는 사해동포주의(universal brotherhood)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찾아진 New Jerusalem의 세계는 역동적 윤리를 바탕으로 한 가장 높은 연대성과 개성이 긴장과 균형 속에 공존하는 열린 동적 윤리의 세계이다.

다시 말해, 블레이크가 제시하고자 했던 삶의 비전은 모든 종류의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우애의 이상이 실현된 인간사회, 모든 것들이 팽팽한 긴장과 균형 속에 공존하는 질서의 세계였다고 할 수 있겠다.

---

24) 김영무, *op. cit.*, pp. 46-47.

Ⅳ. 순수와 경험의 노래에 반영된 신성

Ⅲ장에서 살펴본 조화와 질서의 세계이자 용서와 사랑이 공존하는 세계인 조화로운 열린 동적윤리의 세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블레이크가 그의 전기와 후기의 시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동적 윤리의 세계가 그 기저에 인간의 타고난 신성에 대한 시인의 믿음을 뿌리로 두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블레이크는 경험의 세계에서 인간의 타락과 현실의 음울한 모습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모든 사물이 공존하고 화합하며 서로 다른 인간의 개성도 존중되고 조화를 이루는 열린 동적 윤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이는 순수의 세계에서 신이 존재한다는 순진한 믿음과 인간에게는 타고난 신성이 있어서 다시 순수의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며,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원초적인 신성을 회복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시인의 강력한 믿음과 확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시인의 종교관과 신관(神觀)에 대해 살펴본다면, 블레이크가 궁극적으로 주장하였던 열린 동적 윤리의 세계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Ⅱ장에서 다루었던 “Infant Sorrow”나 “Infant Joy”와 매우 유사한 대조의 형태를 보이며 신의 다양한 속성을 보여주는 시로는 *Songs of Experience*의 “The Tyger”와 *Songs of Innocence*의 “The Lamb”이 있다. 이 두 시를 함께 분석해 볼 때, 독자는 블레이크의 신관(神觀)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의 시에 반영된 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두 시는 신성의 개념에 대해 각각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탐구하고 있다. 길햄에 따르면 블레이크는 일찍이 ‘신은 인간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 사람들에게 올 수 있다’(‘God can come to men only as they are capable of receiving him.’)[25]는 사실을 알았으며 그래서 이 두 시의 화자들은 신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신의 본질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Innocence 세계를 지탱시켜 주는 근본적인 지지기반이 신의 사랑에 있으므로, 신의 구체적 성격을 파악하는 문제가 관건이 될 수 있다. Innocence 세계의 신이란 에덴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했던 사랑과 자비의 신이다. 낙원에서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을 보여주었던 신의 모습은 ‘The Lamb’에서 양을 창조한 신의 모습으로 대변된다. 양은 신의 사랑에 의해 축복받은 창조물로서 신의 사랑의 증표인 셈이다.

---

25) Gillham, *op. cit.*, p. 5

어린양이여,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 너는 아는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시냇물 가에서
그리고 초원에서 너를 먹여주었는지,
너에게 즐거움의 옷, 북슬북슬하고
빛나며 가장 부드러운 옷을 주었는지,
누가 너에게 그처럼 고운 목소리를 주어
모든 골짜기로 기뻐하게 하였는지?
어린양이여,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 너는 아는가?

Little Lamb who made thee
Dost thou know who made thee
Gave thee life & bid thee feed .
By the stream A& o'er the mead:
Gave thee clothing of delight.
Softest clothing wooly bright;
Gave thee such a tender voice,
Making all the vales rejoice:
Little Lamb who made thee.
Dost thou know who made thee(p. 115)

이 시는 화자인 어린이가 어린 양에게 말을 거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인 자신의 종교적인 상상의 특이한 비전이 2인칭 단수 주어에게 말하게 하는 형식(thou-saying)을 취함으로써 잘 나타나고 있다. 아이는 기쁨의 옷을 입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울며 골짜기를 환희로 충만하게 만든 이가 누구인지 어린 양에게 묻는다. 즉, 어린이는 어린 양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기쁨의 의복과 생명,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준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짐으로써 창조주의 사랑과 신의

은총을 보여준다. 블레이크는 어린 양의 속성을 통해서 어린이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은 온유함, 순진함, 순결함 등이다. 여기서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린양"이라고 부르는데서 상징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 블룸은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 "신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양과 같은 아들로서의
> 권화이다; 인간이 신께 드리는 가장 대단한 선물은
> 예수님을 신의 양으로 부르며 그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 이러한 호혜적인 신과 인간의 관계는 가장 수준 높은 진리이다."

> "God's greatest gift to man is his incarnation
> as the lamblike son; man's greatest gift to God
> is his acknowledgment of his redeemer in calling him
> the Lamb of God. This reciprocal relation between God
> and man is the highest truth."[26)]

즉, 양과 같은 온유한 성품으로 현신화한 신과 그를 양과 같은 선한 구세주로 인정하는 인간의 호혜적인 관계에서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는 순수의 세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어린 양'의 의미를 성경과 관련시키지 않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누가복음 18:17). 또 세례자 요한(John the Baptist)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the Lamb of God)이라고 소개하였다(요한복음 1:29).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블레이크가 그의 시에서 상징과 소재를 성경에서 빌려왔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그의 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적 상징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순수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아이와 어린 양이 신성을 보이며 신과 일치한다는 것은 이들이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순수한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Innocence 세계의 신은 권위적이라거나 지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창조물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신이다. 양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

---

26) Harold Bloom, *William Blake's Songs of Innocence and of Experience*, *op. cit.*, p. 68.

고 보살핌을 주는 신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를 아끼지 않는 책임감 있는 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양은 신이 창조해 낸 Innocence의 상징이자, 창조물에 대한 신의 보살핌의 증거인 것이다.[27]

"The Lamb"과 대조되는 "The Tyger"는 6연으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작품이지만, 접근 방식에 따라 이해의 폭이 달라지는 난해한 시이다. 이 시는 정치적 측면에서 접근되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지어 종교적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이다. 이 시는 블레이크의 시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시로 프랑스 혁명이라는 폭압의 시기 동안에 쓰여 당시의 폭력과 위협의 분위기, 그리고 힘을 반영한다.

호랑아! 호랑아! 한밤 숲에서
이글이글 불타는 호랑아,
어떤 불멸의 손 혹은 눈이
네 무서운 균형을 빚어냈지?

어떤 머나먼 심해나 하늘에서
네 두 눈의 불길이 타올랐지?
어떤 날개를 타고 그가 날고자 했지?
어떤 손길이 감히 그 불을 잡으려 했지?

그리고 어떤 어깨, 어떤 기술이
네 심장의 힘줄을 비틀 수 있었지?
또 네 심장이 뛰기 시작했을 때
어떤 무서운 손? 어떤 무서운 발이?

어떤 망치가? 어떤 사슬이?
어떤 용광로에 네 두뇌가 담겨 있었지?
어떤 모루가? 어떤 무서운 손아귀가
감히 그 무서운 공포를 움켜쥐었지?

27) 강 엽, *op. cit.*, p. 30.

별들이 저들의 창을 내던지며
하늘을 그네의 눈물로 적셨을 때
그 분은 자신의 작품을 보고 미소 지었니?
양을 만드신 그 분이 너를 만들었니?

호랑아! 호랑아! 한밤 숲에서
이글이글 불타는 호랑아,
어떤 불멸의 손 혹은 눈이
네 무서운 균형을 빚어냈지?

Tyger! Tyger! burning bright
In the forests of the night,
What immortal hand or eye
Could frame thy fearful symmetry?

In what distant deeps or skies
Burnt the fire of thine eyes?
On what wings dare he aspire?
What the hand dare seize the fire?

And what shoulder, & what art,
Could twist the sinews of thy heart?
And when thy heart began to beat,
What dread hand? & what dread feet?

What the hammer? what the chain?
In what furnace was thy brain?
What the anvil? what dread grasp
Dare its deadly terrors clasp?

When the stars threw down their spears,
And water'd heaven with their tears,

Did he smile his work to see?
Did he who made the Lamb make thee?

Tyger! Tyger! burning bright
In the forests of the night,
What immortal hand or eye
Dare frame thy fearful symmetry? (p. 172)

이 시는 호랑이가 주물로 연마되는 과정을 묘사하며, "The Lamb"에서 화자가 어린양에게 질문을 던진 것처럼, "The Tyger"의 화자도 호랑이에게 창조물과 창조자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왓슨에 따르면 호랑이는 창조를 통한 생산물의 일부로, 호랑이가 지닌 조화로운 아름다움과 광포함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압도한다. 호랑이는 밝게 불타오르고, 활력이 넘치는 위험한 존재이다. 호랑이의 눈에서는 불길이 일어나고, 심장의 박동은 세차게 뛰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한다.[28]

이러한 호랑이라는 포악한 피조물에 미와 균형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우주의 양면성을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물이 이러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인은 이러한 호랑이의 존재로부터의 위압감과 흉포함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을 뛰어넘어 먼 심연과 하늘로 향하는 것 을 바라본다. 5연에 이르기까지 이 시는 신의 본성에 의해 호랑이의 본성을 정의하는 일에 착수한다. 시인은 호랑이의 힘과 아름다움 그리고 야생성과 같은 속성을 통해, 이 시가 신의 가장 위대한 힘에 의해 창조되었음에 틀림없다고 확신하는 듯하다. 그러나 다섯 번째 연에서 호랑이는 더 이상 신의 본질로 정의되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 두 연에서 호랑이의 본성에 의해 정의되는 이는 신이다. 호랑이에 의해 처음으로 불러일으켜진 놀라움은 신이 그의 훌륭하면서 광포한 생명체를 통해 그 자신을 드러냄에 따라 이제 신을 향한다.

이 시에서 화자가 신에 대해 발견한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힘(power)이 아니라 그의 대담함(audacity)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첫 번째 연에 묘사된 것처럼 신이 호랑이를 창조할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마지막 연에 묘사된 것처럼 호랑이의 무서운 균형을 어떤 불멸의 손이 만들어 내었는가 하는 것이 놀라운 것

28) Watson, *op. cit.*, p. 146.

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다루었던 여러 시들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블레이크는 하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미덕을 인간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18세기 후반 서양의 계몽주의 사조를 지배하였던 이신론(Deism)에서 강조되는 '이성(Reason)이 세계의 가치관'이라는 주장에 반박하였으며, 이신론이 기계적인 논리로 인간을 억압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블레이크는 이신론자들(deists)이 믿고 있는 추상적인 하나님을 배격하고, 인간창조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찾으려고 하였다. 즉, 블레이크가 추구하는 신의 모습은 신으로서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동시에 보이는 "현신화된 신(an incarnate God)"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성의 본질 은 "상상력"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in our image), 우리의 모양대로(after our likeness)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하나님이 자기 형상(in his own image)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in the image of God)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세기 1:26-27)라고 증언한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야 한다. 그리고 신, 구약 성경을 예술의 원천이자 근거로 삼고 있는 시인 블레이크는 바로 어린 아이에게서 그가 찾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29]

블레이크가 묘사하고자 하였던 이러한 순수의 세계의 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은 그의 시 "신성한 형상"에서 잘 묘사되고 있다.

즉, 블레이크는 인간을 사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 속에는 타고난 선한 성품 즉 "신성한 형상"("The Divine Image")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하였다. 그는 *Songs of Innocence*에서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 동정, 그리고 사랑이시기에.
또한 그분의 귀여운 자녀 인간도
자비, 동정, 화평, 그리고 사랑이기에.

For Mercy Pity Peace and Love.
Is God our father dear:

29) 강 엽, *op. cit.*, pp. 76-78.

And Mercy Pity Peace and Love,
Is Man his child and care.(p. 117)

이 시는 순수의 상태에 있는 인간과 신에 대한 환상(vision)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신이 지니는 구체적인 본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 시에서 자비(Mercy), 동정(Pity), 평화(Peace), 사랑(Love)은 블레이크 당시에 시대적으로 요구되던 인간의 중요한 속성이며, 순수의 가장 근원적인 속성이거나 신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덕목은 순수의 세계를 이끄는 개별적 특질로, 인간이 신성을 띠고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성함을 지니고 신과 동일시되는 인간의 형상은 그 안에 순수의 모습을 내포하며 인간 구원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블레이크는 인간의 행위가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 즉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도 추악한 모습으로 변질된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Blake의 “A Divine Image”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잔인함이 인간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질투가 인간의 얼굴을
공포가 신성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비밀이 인간의 의상을 입고 있네.

Cruelty has a Human Heart,
And jealousy a Human Face;
Terror the Human Form Divine
And Secrecy the Human Dress.(p.78)

블레이크는 ‘마음에 편재하시는 하나님’(God Within)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은 흉측한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하며 타고난 신성을 지닌 인간이 그들의 타고난 신성을 회복하여 궁극적으로 도달해야하는 질서와 조화의 상태로 만물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대립하는 ‘열린 동적 윤리의 세계’를 제시하였다.

열린 동적 윤리의 세계를 통한 인간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시인의 의도가 가장 극명하게 반영된 작품으로는 “Auguries of Innocence”를 들 수 있다. 이 시는 제목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순수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를 모두 지난 후에 얻을 수 있는, 순수의 회귀에 대한 원숙한 깨달음을 담고 있다. 여기서 블레이크가 느끼는 순수의 전조는 바로 인간 구원의 전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에서는 자연이 신성한 상상력의 본질이자 증명이 되어 인간의 상황으로까지 확장됨을 보여준다. 즉 인간에게도 타고난 참다운 인간성(Humanity)이 있으며, 이러한 인간성에 대한 깨달음은 순수와 경험의 세계를 넘어 인간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블레이크는 예언적인 환상을 보았으며, 자연의 만물에서 인간 영혼의 순수함을 확인한다.[30] 그러면 “Auguries of Innocence”의 서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한 알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야생 꽃에서 천국을 보며,
당신의 손바닥에서 무한을
한 시간에서 영원을 간직하라.

To see a World in a Grain of Sand
Hold Infinity in the palm of your hand
And Eternity in an hour.(p.431)

“Auguries of Innocence”의 첫 4행은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대변하는 듯하다. 한 알의 모래알에서 세계를 보고 들판에 핀 꽃에서 하늘을 보기 위하여 손바닥에 무한(Infinity)을 거머쥐고 시간 속에서 영원(Eternity)을 움켜쥐라고 강변하는 시인의 모습은 이 세상의 수많은 작은 현상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무한과 영원을 깨달으라는 블레이크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다. 손바닥이라는 유한한 공간에서 무한을 얻고 제한된 시간에서 영원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적일 수 있지만 좀 더 깊숙이 고찰해보면 순수와 경험의 세계를 지나 비로소 얻게 된 인간 내면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블레이크가 말하는 무한과 영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때

30) 신 소영, 「William Blake의 시를 통해 본 속박의 양상과 삶의 비전」, (碩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88), pp. 59-60.

비로소 생겨나며 상상력의 힘으로 형성되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There is No Natural Religion"에서 블레이크는 다음과 같이 무한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만물에서 무한을 볼 수 있는 인간은 신을 볼 수 있으나, 단지 부분만을 보는 인간은 자신밖에 볼 수 없다."(p. 97)

이처럼 블레이크는 이성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상상력을 회복하여 유리즌의 상태를 극복하고, 인간의 내면에 잠재한 신성함을 회복하여 무한과 영원을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강옥선은 현실에서의 유리즌의 상태를 극복하고 인간의 타고난 신성을 회복하여 삶에서 구현하는 것은 블레이크의 시를 연구하는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핵심적인 과제라고 보고 있다.[31]

V. 결 론

블레이크는 인간을 억압하는 본질을 이성이라고 보았다. 즉, 기계적이고 획일화된 논리를 주장하는 이성이 개입하면서 세상은 황폐화되고, 인간의 정신도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그는 이러한 인간을 구속하는 모든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를 갈망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18세기 말엽의 산업혁명으로 인해 영국은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급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급격한 발달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공존하였다.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발달과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인간은 경제적으로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였으며, 정신적으로는 이성에 기초한 추상적인 관념과 제도 및 규율의 하녀가 되었다. 그의 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 영혼의 자유와 상상력을 억압하는 모든 종류의 제도와 규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Songs of Innocence and of Experience 는 순수와 경험의 두 대조되는 세계를 통하여 순수의 세계와 타락한 경험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순수와 경험의 두 세계는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세계로 양자의 조화를 통해 보다 고양된 삶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타고난 신성과 신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는 *Songs of Innocence*는 현실의 경험을 통해 타락한 경험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 두 시집은 서로 대립적인 양상을 띠고 있지만 서로 상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순수의 세계를 통해 인간의 타고난 신성을 보여주고 있고, 타락한 경험의 세계를 겪으면서, 다시 타고난 신성을 회복하여 순수의 세계

31) 강 옥선, *op. cit.*, p. 342.

로 나아가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블레이크의 후기의 예언적 시들은 그의 전기시보다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시인이 사용한 복잡한 상징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인은 그의 후기의 예언 시에서 서로 대립되는 힘과 상태들을 여러 가지 상징적 인물들로 의인화하고 있다. 이는 인류의 억압과 굳어진 율법 등으로 나타나는 Urizen(이성)을 통해 블레이크가 인류의 자유에 대한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며, 그가 추구하는 상상력의 상징인 Christ가 Los로 의인화 되는 것 등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블레이크는 모든 종류의 속박과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등이 실현된 인간사회를 지향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과 악, 모순과 대립, 당김과 밀어냄, 이성과 에너지, 사랑과 미움 등의 조화를 꾀하여 인간 고유의 신성과 상상력을 회복한 궁극적인 인간 발전의 상태를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블레이크의 시들에서 드러난 순결의 세계, 억압적 닫힌 윤리의 세계, 역동적 윤리의 세계는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로서 블레이크가 그의 전기와 후기의 시에서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동적 윤리의 세계는 그 기저에 인간의 타고난 신성에 대한 시인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블레이크의 종교관과 신성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그가 이상적 세계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바로 역동적 윤리의 세계가 아닌가 한다.

참 고 문 헌

강엽.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와 사상』.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4.

강옥선 등. 『블레이크와 작은 천국』. 서울: 동인, 2004.

김영무. 「William Blake의 時世界」, 『영어영문학』, 韓國英語英文學會. No. 63, 1977, pp.29-47.

김종윤. 『현대영시론』. 서울: 한신출판사, 1980.

신소영. 「William Blake의 시를 통해 본 속박의 양상과 삶의 비전」 碩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1988.

Bloom, Harold. "Introduction." *Modern Critical Views : William Blake.*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5.

_____ ed. *William Blake's Songs of Innocence and of Experience*.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7.

_____. *Genius : A Mosaic of 100 Exemplary Creative Minds.* New York: An AOL Time Warner Company, 2002.

Bowra, C. M. *The Romantic Imagin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Brian, John. *Supreme Fiction : Studies in the Works of William Blake, Thomas Carlyle, W. B. Yeats, and D. H. Lawrence*.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1974.

Damon, S. Foster. A *Blake Dictionary: The Ideas and Symbols of William*

Blake. New England: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1988.

Frye, Nothrop. *Fearful Symmetry: A Study of William Blake.* New Jersey: Prinston University Press, 1947.

Gillham, D. G. *William Blak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J. R. Watson. *English poetry of the Romantic period 1789-1830*.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85.

Keynes, Geoffrey. ed. *The Complete Writings of William Blake*: *With Variant Readings*. London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영어교육	학 번	20058031	과 정	석 사
성명	한글 : 이새롬 한문 : 李새롬 영문 : Lee Sae-Rom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현대아파트 106동 505호				
연락처	E-MAIL: sr1982@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윌리암 블레이크의『순수와 경험의 노래』에 나타난 인간의 구원 영문 : Human Salvation in the *Songs of Innocence and of Experience* of William Blake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년 2 월 일

저작자: 이새롬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